

# 統一新羅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Unified Shillia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uyng-Ho

## 4. 統一新羅시대의 일반건축

이미 論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대건축에 대하여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일반 주거건축의 형식이나 특성 그리고 건축의 가구형식 등이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안압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건축부재라든가 불국사에 남아있는 석조물, 또 신라 화엄경 불전도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목조건축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문헌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것은 『三國史記』(屋舍條)에 기술된 귀족 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에 관한 조문인데 여기서는 귀족의 계급에 따라 방의 규모와 사용하는 장식 그리고 재료 등을 기술한 것이다. 전기(屋舍條)에는 건축제한을 둔 귀족계급의 층을 4개 층으로 나누어 기술했는데 기록을 보면 최상급 진골에서 6·5·4頭品까지 해당되는 계급마다 규제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했다. 이 내용을 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꾸미는 집의 규모와 사용재료, 형식, 意匠 등이고 다음 건물기단과 계단형식 등이고 그 다음 담장의 치장형식 그리고 문의 설치, 마구간 말의 數, 기타 병풍이나 침상의 사용재료 등의 규제이다.

즉 眞骨, 6頭品, 5頭品, 4頭品 以下 순으로 규제되는 내용을 보면

- 1) 집에 대하여는 室의 크기가 각각 24尺, 21尺, 18尺, 15尺이 넘어서는 안된다 하였고 이들은 모두 지붕에 唐瓦(막새장식)를 사용할 수 없으며 5두품 이하는 獸頭(기와장식)를, 또 박공에 懸魚와 飛簷(부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목조 가구형식에 대하여 6두품 이하에서는 拱牙나 花斗牙(拱包)를 두지 못하고 4두품 이하에서는 藻井(우물천장)을 짜지 못하게 하였고 금·은이나 고급 金石으로 치장된 五彩의 단청을 금했다.
- 2) 기단과 계단에 있어 연마한 돌을 금하고 진골에서는 3층기단<sup>1)</sup>을, 6두품 이하에서는 2층기단을 금하고 4두품 이하는 山石(가공석<sup>2)</sup>)으로 치장하지

- 못하게 했다.
  - 3) 담장 설치에 있어 보와 기둥을 설치하지 못하고 석회를 바르지 못한다.
  - 4) 문틀 두는데 6두품 이하는 重門(重層이거나 겹문)이나 동·서·남·북의 4방문을 두지 못하고 5두품 이하에서는 大門을 두지 못한다 라고 기술했다.
  - 5) 기타 장식물에 있어 병풍이나 자리는 수놓은 것을 쓰지 못하고 침상도 대모나 침향나무로 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sup>3)</sup>
- 이상의 기술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통일신라의 목구조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의 唐의 문화영향을 많이 받아 건축 역시 삼국시대의 건축문화를 계승하는 외에 唐의 건축을 받아들인 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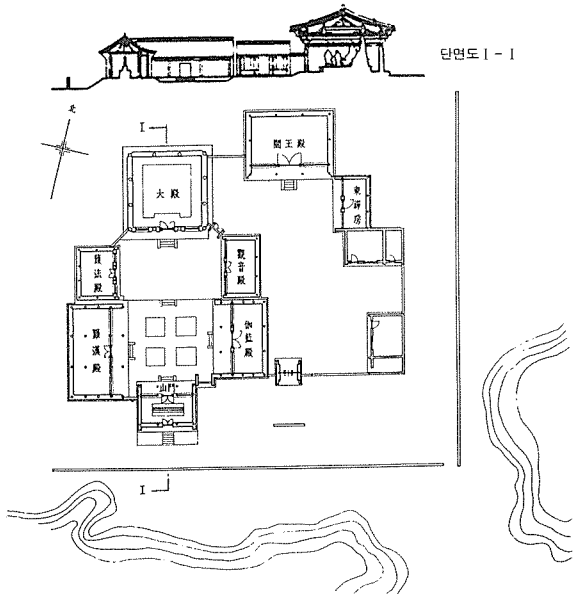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위의(屋舍條) 記述로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중국에 실제 남아있는 西安 慈恩寺大雁塔 門眉石에 조각된 唐代 佛殿圖나 山西 五臺山 南禪寺大殿, 佛光寺正殿 등 현존하는 唐의 유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鳳停寺極樂殿이나 浮石寺無量壽殿, 유물로 남아있는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金동三尊佛龕, 그리고 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佛殿圖와 불국사 다보탑의 석조 난간이나 안압지 출토 공포 부재 등 단편적인 자료들을 비교해 고찰함으로써 서로 상통된 수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건축인 佛定사극락전이나 부석사무량수전 등은 시대가 내려오에 따라 물론 세부적인 기법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 1) 주두와 소로에 심한 굽의 彎曲을 이루며 柱斗굽받침이나 소로굽의 받침은 두지 않았다. (但, 부석사 무량수전은 받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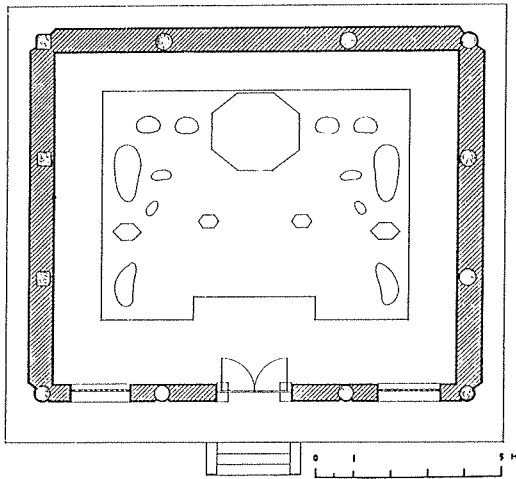
(屋舍條) 記述의 主要事項 早見表

階級	建築物					石階	垣 牆			門	床材
	材料	室의 길이와幅	기와	목조 및 지붕장식	丹青		높이	구조	치장		
眞骨		24尺	唐瓦	懸魚 飛簷	金銀 鑰石 五彩	研磨된 階石 三重階		梁棟	石灰		玳瑁 沉香
六頭品		21尺	唐瓦	懸魚 飛簷 重楸 拱牙	金銀 鑰石 五彩 白鐵	研磨된 階石 二重階 巾階	8尺	梁棟	石灰	重門 四方門	玳瑁 紫檀 沉香 黃楊
五頭品	山 榆 木	18尺	唐瓦 獸頭	懸魚 飛簷 重楸 花斗牙	金銀 鑰石 五彩 銅鐵	研磨된 階石	7尺	梁	石灰	大門 四方門	
四頭品과 百姓	山 榆 木	15尺	唐瓦 獸頭	懸魚 飛簷 拱牙 藻井	金銀 鑰石 銅鐵	山石	6尺	梁	石灰	大門 四方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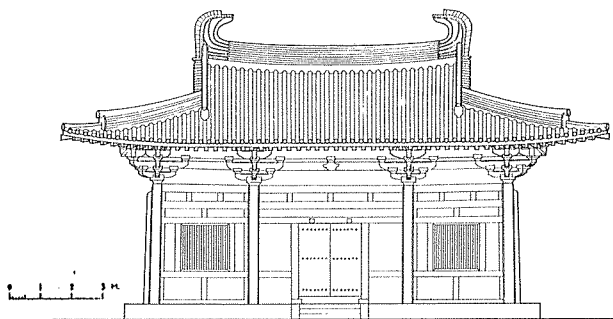
※ 上記 內容은 禁止 또는 制限 事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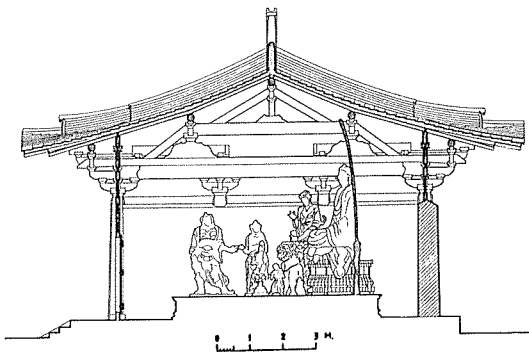
▲五臺山 南禪寺 배치도



▲오대산 南禪寺 大殿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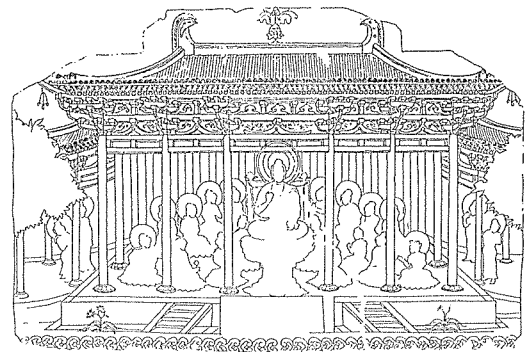
▲오대산 南禪寺 大殿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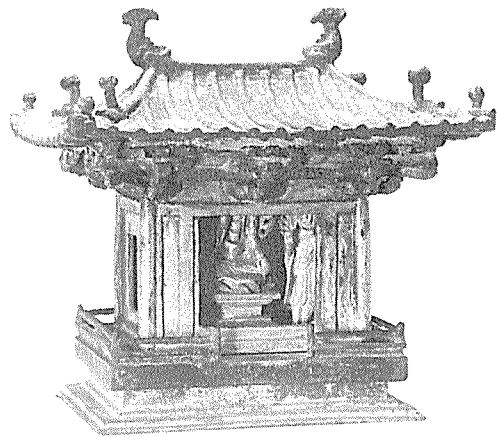
▲오대산 南禪寺 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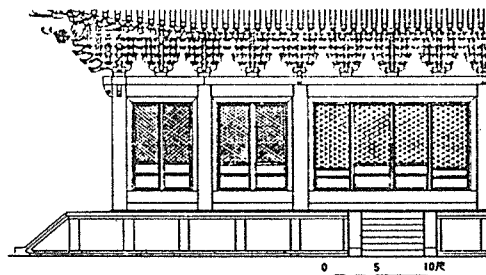
▲新羅 白紙 大方廣佛華嚴寺 佛殿圖



▲西安 慈恩寺 大雁塔 西門 門眉石的 唐代 佛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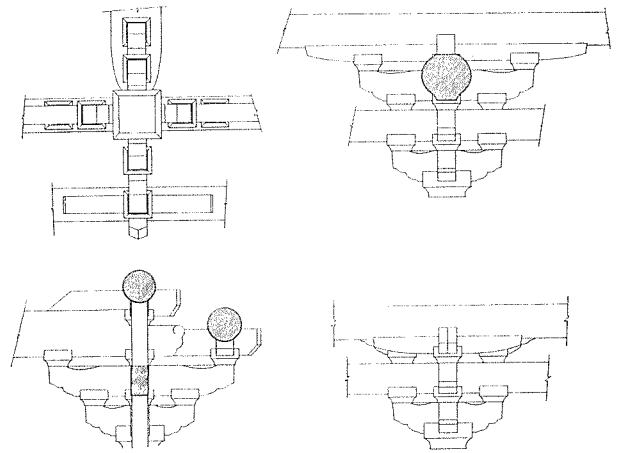
▲간송미술관 소장 金·銅三尊佛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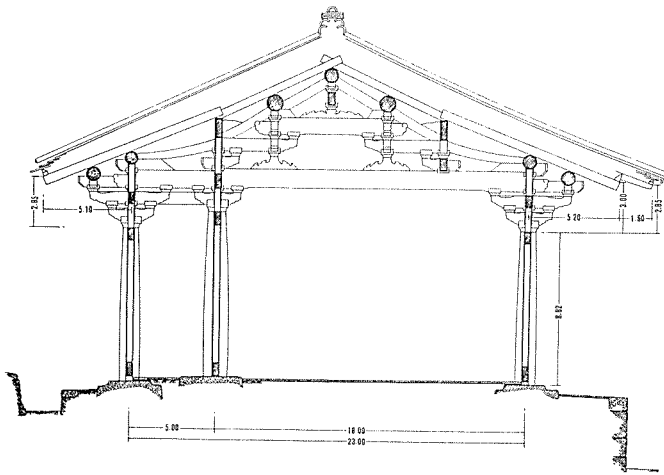
▲佛國寺 大雁殿 基壇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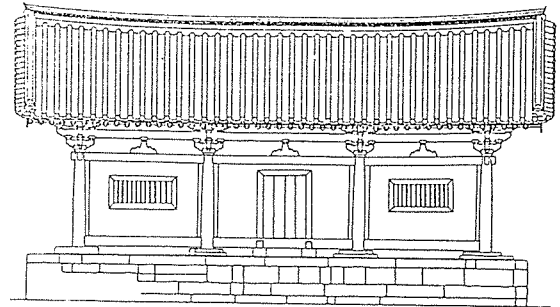
▲안동 鳳停寺 극락전 측면



▲安東 鳳停寺 극락전 拱包상세도



▲安東 鳳停寺 極樂殿 단면도



▲안동 鳳停寺 극락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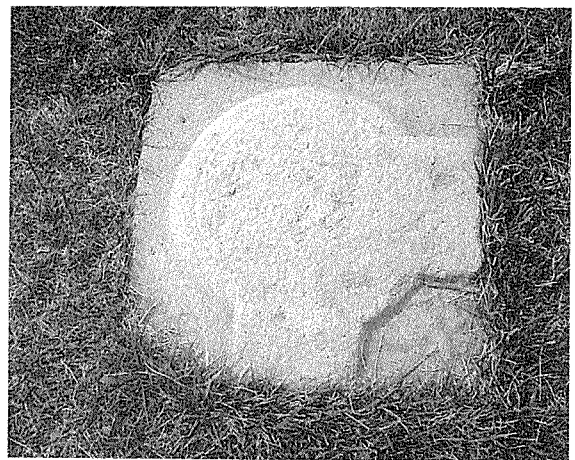
감은사지출토 ▶  
수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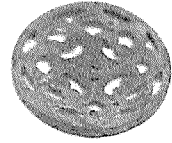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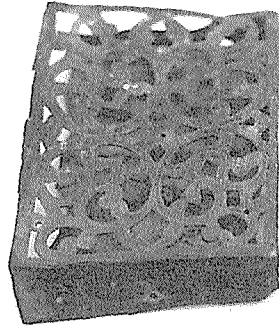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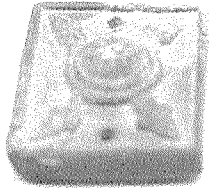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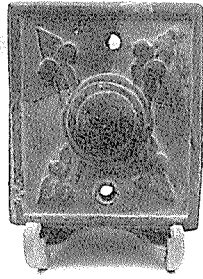


▼ 監恩寺止 기단초석 결구



感恩寺址 회랑지 초석 ▼





금동 부조 장식 곡물  
조각기 (金銅浮彫裝飾穀物  
 조각기)

▲雁鴨池출토 투금장식구

◀雁鴨池  
출토 부연기와



▲雁鴨池출토 당초문 모서리 기와



▲雁鴨池출토 연화문 수막새

두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 2) 공포는 기둥 위에서만 짜여지는 주심포계가 주류를 이룬 것 같지만 상기 금동불감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따라 공간포를 두어 화려하게 꾸미었다. 첨차는 그 끝이 위에서 直切하다가 밑에서는 3번 또는 4번 접어깎은 즉 소위 卷殺를 하여(위의 고려대 건축은 교두형이 아닌 쌍 'S'형임) 宋의 영조법식에 나타난 기법과 통하고 첨차의 짜임은 헛첨차 없이 주두 위에서 같은 모양과 규격의 첨차를 평면으로 보아 '十'자로 짜 중첩하고 一斗三升式의 行工첨차를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補間包나 대공에는 '人'자형의 솟을합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 3) 下昂을 사용한 것 같으나 간단한 구조는 平身包를 많이 사용하고 하양은 두공위에서 짜 일본의 범룡사 금당에서 볼 수 있는 하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으로 믿어진다.
- 4) 기둥에는 엔타시스 즉 배흘림을 두고 있었던 것이나 이것이 당시 중국과 같이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다 중간에서 체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3분의 1 높이에서 아래 위로 체감시켜

결국 下廣上簿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구려의 벽화에 타나난 주형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고유한 선을 이룬 배흘림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5) 기둥의 배열은 안압지나 황룡사지 등지에서 밝혀진 예로 보아 건물의 규모가 클 때는 內外陣 기둥을 배열하여 가구를 꾸미고 작은 규모일 경우는 통칸으로 가구를 형성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 6) 평방은 없이 창방만을 두어 주심포계 가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장혀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단장혀도 사용했다. 이것은 현존 고려시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단장혀와 비슷한 것이다.
- 7) 장호는 울주 증산리 출토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불박이 살창과 판문을 혼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이나 일본의 현존하는 同代 건물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 8) 옥개부는 부연을 갖는 겹처마를 사용함은 물론 맞배, 우진각, 팔작지붕 등이 짜여 지고 기와에 토수기와, 미구기와, 막새기와, 鬼面와, 바래기, 망와, 치미, 박공기와, 연목와 등 많은 종류의 치밀하고 화려한 장식와를 사용했고

부연이나 서까래 끝에 금속제 장식도 사용했다.

- 9) 건물에는 화려한 단청을 시문했고 특히 벽에는 화려한 벽화가 그려졌다는 것은 기록이나 금번 미륵사에서 출토된 벽화편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술 외에도 난간이나 金具 등이 화려하게 치장되었음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일반건축은 기술상 최고경지에 달하였다고 믿어진다.

통일신라 말경 경주의 민가 주택건축은 초가지붕이 없이 기와집이 많았고 솟으로 밥을 지으며 노래와 피리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다.<sup>4)</sup> 또 35金入宅과 四節遊宅 등의 귀족 주택이 화려하게 꾸미어졌음을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고 겨울에는 화덕을 실 안에 만들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놓아 먹었다.<sup>5)</sup>

#### □註□

- 1) 이를 계단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으나 필자는 기단으로 본다.
- 2) 가공하지 않은 石材는 냇돌을 사용함이 보통이다.
- 3)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第二 屋舍條.
- 4) 三國史記, 卷第十一 新羅本紀 第十一 憲康王六年條.
- 5)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條.